

판본경쟁 화제 모으는 千日의 夜話

열권짜리 「아라비안나이트」 두곳서 출간되며 중복출판 시비 일어

요즘 출판가에서 쑥덕이는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2종의 「아라비안나이트」의 출간을 둘러싼 해당 출판사들의是非와 이를 지켜보는 '제3자들'의 관전평이 아닐까 싶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단순한 이야기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충분한 우리 출판계의 현안문제에서부터 묵을대로 묵은 구조적인 악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건이 응축하고 있는 듯해 지면을 통해 그것을 그대로 중계해보고자 한다.

출간시점 장정 비슷 독자들 혼란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500여종의 국내외의 명저·명작들을 출간해온 범우사(대표 윤형두)가 “무삭제 완역” “성인용” 등의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전10권짜리 「아라비안나이트」의 첫 3권을 선보이면서부터이다. 범우사는 이어 4.5권 6.7권을 연달아 내면서 불과 6개월만인 지난 5월 일반인들에게는 ‘천일야화’란 이름으로, 아동들에게는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나 ‘신바트의 모험’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전10권짜리의 방대한 이 아라비아의 설화모음을 완간했던 것이다.

문제는 범우사의 「아라비안나이트」가 채 완간도 되기 전인 올 4월 또 한 종의 「아라비안나이트」가 독자들 앞에 ‘홀연히’ 나타나면서부터 생겨난다. 범우사의 화려한 ‘광고패’에 다소 가린 채 조용하게 서점가에 입성 한 ‘후발’ 「아라비안나이트」의 ‘출신’ 역시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명성이 있고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당(사장 김동구)이다. 이 ‘후발」 「아라비안나이트」 역시 10권짜리로 출간의 속도는 범우사의 그것보다 더 빨라 불과 한 달 사이에 5권씩 두 꾸러미의 선물용 박스에 실려 독자 앞에 나타났다.

이 두 종의 책이 서점의 점두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시입장’ 하자 먼저 서점사람들과 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똑같은 10권짜리이다 비슷한 장정에 들기 좋도록 만든 선물용 박스하며 연이어 ‘치기’ 시작한 광고의 형태며 내용 등은 ‘느낌상’ 몹시 흡사하여 특별한 주의를 갖지 않고 무심히 보아넘긴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일으키기 일쑤였다고 한 서점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당연히 제기된 것이 요즘 출판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중복출판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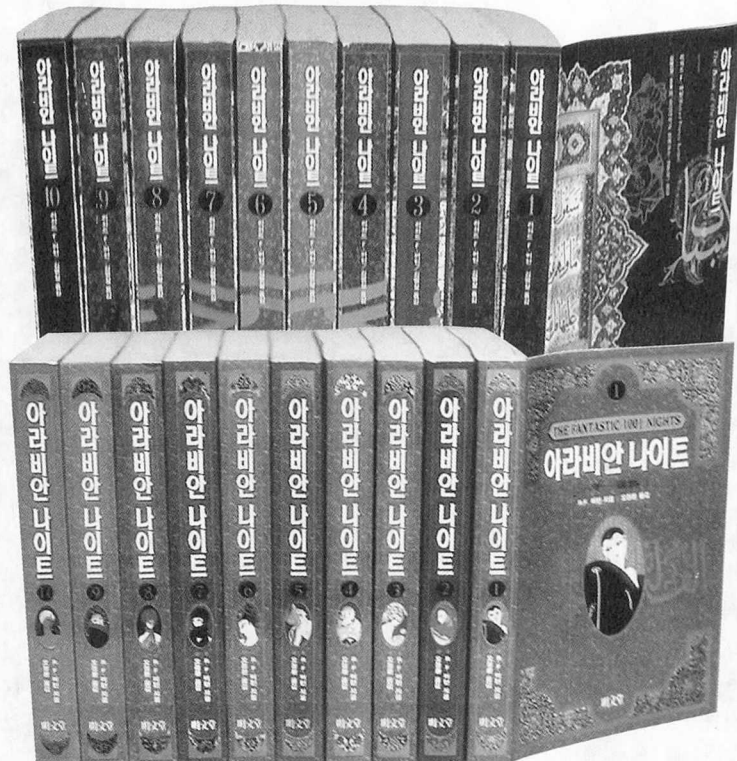
당연히 ‘후발’로 나온 명문당에 혐의가 집

중되었는데 ‘중복출판’이라는 일단의 비난과 함께 여기에는 몇가지의 궁금증도 따랐다. 어떻게 두세권도 아니고 10권짜리가 불과 몇달의 시차를 두고 동시출간될 수 있으며 「아라비안나이트」란 작품이 아무리 유명한 고전이라 하더라도 중복출판의 주요 표적인 ‘상업적인’ 문예물도 아닌 것을 두 군데서 출간했다는 것은 단순한 중복출판의 문제로만 보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절대 중복출판이 아니다” “주변에서 중복출판의 얘기만 나오면 최근 사례로 항상 우리를 드는데, 억울하다”는 명문당측의 호소가 있었고, 이 두 종의 같은 책의 출간을 지켜보는 출판업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어느 쪽에서 낸 소문인지 진원은 알 수 없으나 두쪽 모두에 대해 구구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서면으로 보내온 명문당의 제작의辯은 이렇다. “본사는 1969년 동서문화사에서 발간한 오정환 역의 「천일야화」(전8권)를 지난 76년 외관을 할 목적에서 인수했으나 당시 끼워팔기 등 불미스런 영업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제작을 미뤘다. 그러다가 83년 출판사의 사정상 다른 출판사로 인계했는데, 그곳에서 출판을 하지 않자 91년 다시 인수하여 출간준비에 들어갔다. 다른 책들에 밀려 다소 늦춰지다가 92년 3월 재착수에 들어가 외주를 주었는데, 거래처의 예기치 않은 경영난으로 재발주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지연된 시간 동안 타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나 우리가 정식 판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동안 자료수집, 운문 등 많은 투자를 한 책이므로 고심 끝에 그곳보다 약간 늦은 올 4월 수정 대역신 초판을 내게 되었다.” 침묵없이 옮긴 명문당측의 이야기인데 해석은 나름대로 하면 되겠다.

범우사 윤형두사장으로 부터 들은 출간진행과정 이야기도 그대로 옮기자면, “나와 번역자 김병철(중앙대 명예교수, 영문학) 선생은故안춘근 선생과 더불어 산행을 같이해온 오랫동안의 지기다. 김병철 선생이 정년 전부터 이 책의 번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고, 나 역시 요즘 세태에 대한 경고의 의미에서라도 이 책이 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역자에게 매일 얼마씩 월급식으로 지급해왔다. 번역의 텍스트는 R. 버턴이 1885년 1000부 한정판으로 찍은 책의 영인본이다. 한 5년쯤 걸려 이 번역이 완료되었다. 우리는 이 책의 출판에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범우사(사진 위)와 명문당의 「아라비안나이트」 전집.

막대한 번역료는 물론이고 표지디자인만도 500만원 가량에 몇달을 걸려가며 제작했고, 광고도 이 책 하나에 현재까지 4, 5억원을 들이며 대대적으로 공을 들인 우리출판사로서는 올해 최대의 야심작이다.”

범우사측으로부터 명문당이 중복출판 혐의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점이다. “시기는 열번 양보하여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분위기가 비슷한 표지장정”이며 “일간지의 광고마저도 책의 사진, 형태 및 카피의 내용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확연하다”는 것이 이쪽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인 광고, 표지제작비에 “무임승차한 것이 뻔하면서도” 오히려 갖가지의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명문당의 행태가 꽤 심하다 못해 “복장을 치고 나자빠질 일이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유령처럼 떠다니는 루머다. 가장 큼지막한 것 두 개를 소개한다. 하나는 범우사와 출판업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고, 하나는 명문당을 비롯해 출판가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먼저, 대개의 출판물이 정가의 70%에서 서점에 내는 데 비해 명문당측이 정가의 40~50%에 서점에 넘으로써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 루머는 5년여에 걸쳐 번역을 했다는

역자에 대한 의구심이다. 현재 73세된 노교수가 아무리 5년을 공들였다 하더라도 10권짜리의 완역은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세계문학류일 경우 한 작품에 대해서 “몇개씩 나들아다니는” 지형을 “범우사 쪽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운문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범우사측의 답변은 “분명 새로 번역을 했으며, 역자의 번역에 구투나 어색한 부분을 다소 손질한 것은 사실(번역출판의 경우 대개가 그렇게 하나)이나 지형은 가지지 않았다”고 펄쩍 뛰었다.

흔히 “지형 브로커”로 불리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형치고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옛출판물의 지형이나 판권의 행방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씨는 “「아라비안나이트」 권은 모른다”고 함구하고 있다. “본래 명문당은 옛책을 많이내는 관계로 지형을 잘 사들이는 출판사로 알려져 있지만, 범우사 쪽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범우사의 운사장은,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다시 내려고 보니 옛날 동서문화원(동서문화사의 잘못?)에서 낸 지형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옛지형은 알다시피 지금 그대로 소용될 수 없는데 다만 그 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사 폐기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책을 새로 번역해 냈을 때 뒤따라 출판되는 경우가 없어진다. 우리는 오히려 굴러다녀서는 곤란한 지형을 사서 폐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며 옛지형에 대한 범우사측의 입장을 밝혔다.

지형브로커 "새로운 번역은 없다"

사실 옛지형의 불법복제 및 유통은 출판계의 목을대로 목은 환부이다. 특히 이 지형의 부당유통을 양산하여 "그저 앉아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일부 안일한 출판업자들을 유혹한 문제의 진원이 출판사 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현재 명작이라 불리는 세계문학은 작품마다 수종씩 나와 있지만 꼼꼼히 대조해 보면 새로운 번역이라곤 좀 과장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집물의 경우 더 심한데, 일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면, 대체로 일어 중역인 이런 책은 처음에는 이름없는 역자에게 쓴 번역료에 맡겼다가 나중에(흔히 "매명" "차명"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돈을 얼마씩 주고 유명교수의 이름을 사서 붙이기 일췌이고, 이렇듯 하나의 번역에 대해 윤문 등으로 약간씩 달라진 내용은 여러개의 지형으로 복제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후에 여러출판사의 이름을 달고 출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다시 그에게 의하면 "굳이 지형을 갖지 않더라도 옛번역물을 참조하는 일은 허다하다"는데, 출판가에 떠도는 범우사의 번역에 대한 루머의 근거는 범우사측의 아니라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형을 가지지 않더라도 옛 번역본을 많이 참조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즉, 새로 번역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비슷한 번역이 곳곳에 산재한다는 지적이다.

몇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먼저 특수한 보통명사가 같이 사용되는 점에 유의하시길.

"나리, 나는 말이 적기 때문에, 형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병어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은 수다쟁이 알 바크부크라 불리고, 둘째 형은 떠벌이 알 핫달, 셋째 형은 조잘망태 알 파키크, 넷째 형은 은종일 입을 놀리므로 알 쿠즈 알카스와니, 다섯째 형은 허풍선이 알 나슈사르, 여섯째 형은 덜렁이 샤카시크, 일곱째야말로 병어리 알 사미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새로 번역된 범우사 「아라비안나이트」 1권 30일째밤 이야기 가운데서.)

"나리, 나는 말수가 적기 때문에 여섯 형들과 구별하기 위해 병어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은 수다쟁이 알 바크부크라 불리우고, 둘째 형은 떠벌이 알 핫달, 셋째 형은 조잘망태 알 파키크라고 부릅니다. 넷째 형은 은종일 입을 놀리므로 알 쿠즈알 카스와니, 말하자면 참새대장이라는 뜻이지요. 다섯째 형은 허풍선이 알 나슈사르, 여섯째 형은 덜렁이 샤카시크라고 하며, 일곱째야말로 병어리 알 시미트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명문당이 판권을 가졌다는 69년도판 동서문학사의 「천일야화」의 같은 부분.)

하나만 더 예를 들자. 이 문단을 대조하는

것은 여기에 '부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리다'는 뜻의 이 낱말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의아해서다.

"이리하여 교주는 그 무덤은 가짜이고 쿠트 알 쿠르브가 4개월 동안이나 가님네 집에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미칠 듯이 노한 교주는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태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바르마키가의 대신 자파르도 교주 앞에 나와 두 손을 짚고 부복하자 교주는 노여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범우사 2권 42일째의 밤이야기.)

"이리하여 교주는 묘가 가짜이고 쿠르브는 6달 동안 가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칠 듯이 노한 교주는 별떡 일어나 태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바르마키 집안의 대신 자파르가 왕 앞에 나와 두 손을 짚고 부복하자 교주는 노여움에 떠는 소리로 말했습니다."(69년 동서판)

이같은 부분적 일치사항에 대하여 번역물을 다수 내어본 출판사의 사장들은 새로 번역을 했다기보다 범우사 최신판이 69년 동서판을 많이 참조했을 거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꼭 참조대상이 동서판이 아니더라도 오롯이 새로 번역했다고 보기에는 의혹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번역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같은 텍스트를 놓고 번역을 해도 어찌한 것 틀리고 오늘날 것이 틀린데 하물며 20여년도 더 차이가 나는 역본끼리 떠벌이, 조잘망태, 허풍선이, 덜렁이, 부복 등과 같은 어휘의 사용은 우연의 일치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출판사의 문제인지 번역

자의 문제인지는 너무 미묘하여 선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 역시 꼼꼼히 따져볼 독자의 몫이다.

양출판사 구설수 소지 다분해

지금 서점가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출판윤리나 출판업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두 종의 「아라비안나이트」가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연하자면, 범우사는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명문당은 광고나 장정에서 또 20여년도 더 된 지형을 가지고 약간의 윤문만 거친 "안일한" 태도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릴 소지가 있다. 물론 그런 책이 이 두 종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것이 명성과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출판사에서 나왔고 가장 최근의 사례라 입에 더 오르내릴 뿐이다.

둘 다 10권짜리이고 각권의 페이지 수도 비슷하고, 둘 다 각권 8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한쪽은 일본에서 간행된 같은 책의 흑백 삽화를 이용했고, 다른쪽은 다소 조악한 느낌이 드는 뇌쇄적인 원색화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도 누가 누구를 베끼고 원 텍스트를 무엇을 사용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번역의 매끄러움이라든가 문제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고, 책만드는 사람들의 정성에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하나는 베스트셀러에, 하나는 그것의 20분의1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며 점두에 나란히 진열돼 있다. 독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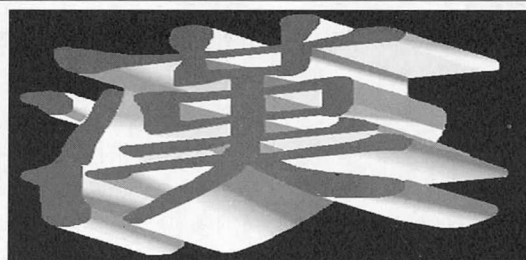
—정혜옥 기자



Macintosh Desktop Publish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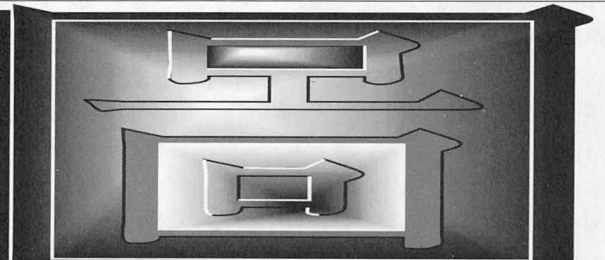
맥킨토시를 줄여서 '맥'이라고 한다. 진정한 Full Pagenation(글자·사진·도표·그림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완성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구현하므로 칼과 풀(대지작업)이 필요 없다.

※ ECRM社의 PelBox/VR-30이 신속한 출력을 보장한다.



컴퓨터에는 약 4,500餘字의 漢字 밖에 없다. 그러나 脈漢圖에는 모든 漢字가 다 있다. 그 외에 中國簡字·日本略字·古語들이 있다. 전화/팩시 한통이면 회면용 폰트가 配達된다.

漢字는 人類精神의 寶庫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소리글자(입술기벼운소리)에 中毒된 現代人들의 荒廢한 精神世界를 治療할 수 있는 唯一無二한 治療劑이다.



도안·그림(그래픽)·사진들이 함께 처리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脈漢圖

Tel 723-1955 Fax 723-6789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310호
代表 琴河淵